

흥행의 서막 연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5일 만에 100만 돌파
'크루엘라' '블랙위도우' 등 개봉 줄이어
영화계 "관객 갈증 해소하는 계기 되길"



19일 선보인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닷새 만인 23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극장가는 이 기세를 몰아 있던 대작 개봉에도 관객 발걸음이 이어질지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유니버설픽처스

현란한 자동차 액션의 맹렬한 질주에 극장가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여름 시즌을 앞두고 있던 블록버스터가 개봉을 대기 중인 가운데 극장가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극장가 활기의 엔진에 시동을 건 영화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분노의 질주)이다. 19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는 5일 만인 23일 오전 11시50분 100만179명(배급사 집계)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2019년 11월 '겨울 왕국2' 이후 개봉 5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한 외화가 됐다. 또 토요일인 전날 26만5000여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

망)을 동원한 점에 비해 23일 현재까지 120만 안팎의 관객을 불러 모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개봉 첫날 40만 관객을 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 흥행 수치를 기록한 영화는 감염병 확산 속에서 최단기간 100만 관객을 넘어선 외화로 남았다.

극장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23일 한 극장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여파 속에서도 새로운에 대한 관객 갈증을 해소해줄 신작이라면 얼마든지 흥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이런 분위기가 여름시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관객의 극장(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제작 및 배급사의 흥행 불안감까지도 털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대감은 26일 '크루엘라'에 이어 한국에도 팬덤을 굳건히 구축한 마블스튜디오의 대작이 잇따라 찾아온다는 점에서 더욱 커진다. 7월 '블랙 위도우'를 시작으로 9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마동석이 안젤리나 졸리 등과 함께한 '이터널스'(11월), 12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등이 대기 중이다. '아이언맨' '어벤저스' '캡틴 아메리카' 등 마블스튜디오 작품들이 선보일 때마다 국내 극장가를 장악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라인업

은 극장가에 더 없는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마블스튜디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대작에 대한 관객 관심이 한국 영화 기대작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져 올해 극장가가 활력을 되찾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편 '분노의 질주'의 흥행세에 주연 빈 디젤이 한국 관객에게 특별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 편지를 보내와 눈길을 끈다. 빈 디젤은 "많은 관객이 극장에서 봤다고 들었다"면서 "한국 팬들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김연자, 올 가을 '7년동거' 소속사 대표와 결혼



김연자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결혼 소식을 전했다. 김연자는 23일 SBS 예능프로그램 '타키타카'에 출연해 "올해 가을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속사 대표인 남자친구와 7년째 동거 중"이라며 "50년 전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자는 앞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을 통해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렸다. 1974년 노래 '말해줘요'로 데뷔한 김연자는 1980년대 일본에서 활동하며 '엔가의 여왕'으로 불리는 등 인기를 얻었다. 최근 '아모르파티' 등으로 다시 사랑받고 있다.

로제 솔로곡,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돌파



로제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솔로곡 '온 더 그라운드'로 23일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3월12일 공개한 지 71일 만으로, 한국 여성 솔로 가수 음원 중 최단기간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돌파 기록이다. 그는 '온 더 그라운드'의 뮤직비디오로도 공개 7일 15시간 만에 유튜브 1억 조회수를 달성, 한국 여성 솔로가수 신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로제가 속한 블랙핑크는 이로써 스포티파이에서 통산 15번째 역대 스트리밍 음원을 보유하게 됐다.

선,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1호 하우스' 완성



선

가수 선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집을 완성했다. 23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선은 20일 전남 화순군 도암면에서 한국 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건축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20 버추얼 815년'을 개최해 81.5kg를 완주하며 모은 기부금으로 독립유공자 김용상 선생의 손녀인 김금순 할머니에게 보금자리를 안겼다. 선은 "3000명의 러너들이 함께 달리고 24개 기업이 힘을 보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첫 번째 집이 지어졌다"며 "100호집 완성까지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내달 17일 개막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6월17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 슬로건은 '새로운 희망'으로, 철저한 감염병 방역 아래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올해 영화제 개막작은 안재홍 감독의 '무녀도'이다. 이를 포함해 26개국 78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강원도의 영화적 성과를 소개하는 '시네마틱 강원'과 통일 및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평양시네마', 감염병 확산 여파로 보기 힘들었던 지난해 개봉작도 다시 선보인다.

'뷰티풀 민트 라이프' 공연계 최초 진단키트 도입

야외 음악페스티벌인 '뷰티풀 민트 라이프'가 올해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주최측이 공연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도입한다. 23일 공연기획사 민트라이프는 6월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을 연다고 밝혔다. 야외 대중음악 축제가 열리는 것은 2019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풀킴·이하이·페퍼톤스·정준원 등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주최 측은 현장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10분 안에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키트를 활용할 방침이다.

8인조 프로젝트그룹 'MSG워너비' 가요계 다크호스

오디션곡 모두 음원차트 상위권 작곡
싸늘이·환불원정대 성공 이을지 관심



그룹 'MSG워너비'

8인조 프로젝트 발라드 그룹 'MSG워너비'가 무대에 안착했다.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오디션을 치른 가수 김정민·사이먼 도미닉·KCM·박재정·원슈타인, 연기자 이동휘·이상, 방송인 지석진 등 8명의 최종 멤버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앞서 싸늘이·환불원정대 등 프로젝트 그룹을 모두 성공시킨 '놀면 뭐하니?'가 이번에도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그룹은 22일 내놓은 오디션곡으로 일찌감치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태연의 '만약에'와 빅마마의 '체념', 라비의 '상상 더하기'의 리메이크곡이 하루 만인 23일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에 랭크됐다. 시청자들은 독특한 멤버 조합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50대 김정민·지석진부터 20대 박재정·원슈타인까지 포진해 각 세대와 공감할 지점이 많고, 발라드 외에 힙합(사이먼 도미닉)·록발라드(김정민)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두 달여 오디션 과정을 통해 다진 탄탄한 팀워크도 돋보인다.

이들은 전체 및 유닛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할 계획이다. 사이먼 도미닉·이동휘·박재정 등 멤버들은 23일 SNS를 통해 "감격적이다" "열심히 하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드러냈다. 그룹의 모태인 발라드그룹 SG워너비와 실제 만날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SG워너비는 앞서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이후 차트 여주행에 성공해 최근 완전체 활동을 논의 중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안재모, '야인 이즈 백' 킹두한으로 컴백

'창년 김두한' 안재모가 2002년 주연한 SBS 드라마 '야인시대'의 명성에 기대 색다른 무대에 나섰다. 방영 당시 50%(닐슨 코리아)의 시청률을 훌쩍 넘겼던 드라마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양하게 패러디되는 등 새롭게 인기를 끌면서 이를 콘셉트로 내세운 카카오톡TV '야인 이즈 백'을 새 무대 삼았다. '야인시대'는 김두한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이다.



카카오톡TV '야인 이즈 백'

안재모는 '야인 이즈 백'에서 드라마 속 청년 김두한 캐릭터를 패러디한 '킹두한'으로 출연하고 있다. '야인시대' 열혈 팬인 개그맨 이진호와 함께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었던 서울 종로 일대를 누빈다. 중점모와 트랜치코트를 입고, 자신을 칭찬하는 시장 상인에게 "오늘은 자릿세 면제요"라

고 말하는 등 '야인시대'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며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풍토로 연기하고 있다. '쌍칼' 박준규 등 함께 드라마 속 인물들도 얼굴을 내밀고 있다.

콘텐츠가 안기는 핵심 역시 "조선의 킹, 킹두한이오"라며 콘셉트에 심취한 안재모

의 천연덕스러움에 있다. '야인시대'를 기억하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2030세대 이용자까지 끌어들이면서 유튜브상에서 많게는 10만 조회수를 얻는 등 빠르게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영상에는 "이렇게 다시 보니 기분이 묘하다" "쌍칼과 김두한의 19년만의 포옹에 가슴이 찡해졌다" 등 반가움 가득한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안재모는 예능 영역에 새롭게 도전하는 만큼 포부가 남다르다. 그는 최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극중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장년 김두한 역의 김영철을 비롯해 조상구(시라소니), 이재용(미와) 등을 만나보고 싶다"며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이들과 다시 호흡을 맞출 것"이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김민기

1970~80년대 저항문화의 상징이면서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현장에서 늘 불린 노래, '나 이제 가노라/저 거친 광야에/서러움 모두 버리고/나 이제 가노라'라는 노랫말의 비장함은 수많은 청춘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극단이자 소극장학전의 대표이면서 공연기획자 김민기가 1971년 세상에 내놓았던 노래 '아침이슬'이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정태춘·한영애·박학기·이은미·장필순·나윤선 등 보컬리스트로부터 윤종선·윤도현·유리상자 등 포크와 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이를 다시 부른다. 그룹 레드벨벳의 웬디와 이남치밴드, 크라이넛, NCT 태일 등도 참여한다. 최근 가수 한영애와 박학기를 비롯해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 등이 결성한 '아침이슬' 50주년, 김민기 헌정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제작하는 김민기 헌정음반이다.

이들은 김민기의 노래 18곡을 다시 불러 6월 음원을 공개하고 7월 음반에도 담는다. '아침이슬'을 비롯해 '친구' '상록수' '작은 연못' 등 김민기의 대표곡을 노래한다. 김민기가 기획해 무대에 올렸던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출신 배우 황정민도 권진원과 함께 '이 세상 어디가'를 부른다. 조동희·윤일상 등 편곡 뮤지션들도 경쟁한다.

실제 무대에도 선다. 6월20일 방송하는 KBS 1TV '열린음악회'와 함께 9월 이후 오프라인 공연을 펼친다. 추진위는 또 '인형' '고무줄놀이' 등 김민기의 동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동요음반도 만든다. 헌정 전시도 연다. 추진위는 "김민기의 예술과 정신에 영향을 받은 임옥상, 정연두, 홍성담, 홍순관 등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이 6월1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오마주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